

다문화로 시작된, 가야문화

1회차 '튀르키예의 날'

강사 조윤수(前 주 튀르키예 대한민국 대사)



튀르키예는 우리나라에서 8,00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먼 나라이지만, 우리와 비슷한 언어·문화·사회관습이 발견되고, 한국전쟁에 대규모 병사를 파병하였기에 정서적으로 친숙하게 느껴지는 국가이다. 튀르키예는 소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은 히타이트·앗시리아·트로이·페르시아·그리스·로마·셀주크·오스만제국 등 당대의 강국이 차지했던 땅이어서 문명이 중층적으로 쌓여있다. 이스탄불만 하여도 비잔티움·오스만제국의 1600여년의 수도로서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문명의 야외박물관이라고 할 정도였다.

현재 튀르키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스라엘-하마스전쟁에서는 이슬람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기도 하다. 과거 그리고 현재에도 국제적으로 비중이 있는 나라이고 우리와도 역사적으로 연관성이 있으나 잘 모르는 점이 많다. 어느 국가를 이해하기 위하여 지리적 인 여건과 함께 지도자의 성향을 우선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의 문화 중 상당수가 과거 전쟁의 흔적이었음을 이해하는 가운데 튀르키예 역사와 문화를 접근하게 되면 튀르키예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것이다.

다문화로 시작된, 가야문화

2회차 '카자흐스탄의 날'

강사 공원국(역사인류학자)



인도에 버금가는 면적, 아시아의 유럽이라 불리는 문화적 다양성과 개방성, 거친 사막과 눈 덮인 천산산맥 아래로 펼쳐진 대초원의 바다를 품은 땅. 최소한 3천년 동안 지구에서 유목민들에게 가장 넓은 터전이 되었던 카자흐스탄.

아시아의 서쪽 끝에 있기에 우리에게 멀게만 느껴지지만, 카자흐스탄은 오래전부터 우리와 역사·문화적으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초원-실크로드의 간선에 위치했기에 우리 선조들이 더 넓은 세계에 참여하도록 도움을 준 곳, 대기근 직후에도 극동에서 이주한 고려인들을 따듯하게 맞아 준 품 넓은 사람들이 사는 땅, 러시아 식민지와 소비에트 시절을 겪으면서도 스스로의 문화를 지켜내고 독립을 일군 '자유인'(카자흐)들이 사는 땅, 카자흐스탄. 심지어 카자흐어도 한국어와 쌍둥이처럼 닮았습니다. 초원문화의 요람에서 그 정수를 느껴보아요!

다문화로 시작된, 가야문화

3회차 '몽골의 날'

강사 이평래(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초빙연구원)



몽골은 초원의 나라다. 물론 몽골 북부는 시베리아의 삼림지대가 이어지고, 국토 남부에는 거대한 고비사막이 있다. 그러나 국토의 70% 정도가 풀밭이니 초원의 나라로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곳 거주민들은 먼 옛날부터 이 풍요로운 초원에서 유목으로 생계를 꾸려왔다. 유목은 사계절 거처를 옮겨 다니는 목축이다. 언제 처음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유목을 시작했는가는 알 수 없지만, 기원전 3세기 몽골 땅에 최초로 나라를 세운 흉노인들이 유목민이었던 것은 확실하다. 적어도 이때부터 유목은 몽골 땅에서 삶을 영위한 사람들의 가장 주요한 생계방식이 되었고, 현재도 몽골 전체 인구의 10% 이상이 유목 목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몽골 문화는 기본적으로 그들의 전통 생업인 유목에 기반한 유목문화라고 할 수 있고, 이는 현대 몽골 문화와 몽골인들의 삶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유목문화는 몽골 땅에 건립된 거대한 유목국가, 예컨대 흉노제국(BC 3세기~AD 2세기)이나 몽골제국(13~14세기) 시기에 주변국을 넘어 세계 각국으로 전해졌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원 간섭 시기에 한반도는 몽골 문화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있었다.

이런 제반 사항을 염두에 두고 본 강의에서는 전통 생업인 유목의 실태를 알아보고, 이어 거기에서 만들어진 독특한 유목문화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이와 아울러 유목과 유목문화 전통이 현대에 어떻게 이어지며, 현대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오늘날 몽골인들의 삶을 통하여 알아볼 것이다. 이와 함께 본 강의에서는 한몽 간 문화교류에 대해서도 가능한 범위에서 살펴보려고 한다.